

SM ENTERTAINMENT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설명

March 2023

DISCLAIMER

본 자료에는 경영진이 현재의 정보를 토대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으로써 <전망>, <전략>, <계획> 등과 같은 단어로 장래를 예측하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 장래를 예측하는 진술은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미래의 성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본 자료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미래의 사건 기타 원인이 발생한다고 하여, 회사가 장래예측진술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드리는 글 (SM엔터테인먼트 박준호 감사)

SM엔터테인먼트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주주제안을 거쳐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지지로 선임된 박준호 감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감사로 선임된 이후, 저는 회사의 여러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와 함께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M 이사회는 지난 기간 이어져 온 최대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모든 주주를 위한 경영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0월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조기종료 결의를 시작으로, 드디어 오랜 기간 수많은 SM 주주가 바라온 SM 거버넌스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구성원의 교체 없이, 자발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SM 3.0은, SM 임직원이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결과물이자 앞으로 SM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SM 3.0 전략이 실행되면, 그동안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억눌러왔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상당수 해결되고, SM이 보유한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 IP가 팬 분들께 더욱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세계를 상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실을 주주환원과 체계적 보상 체계, 팬과 아티스트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주주와 임직원, 팬, 아티스트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수만은 SM의 최대 경쟁사인 하이브에 본인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하이브는 SM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수만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주주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이수만의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고 하이브가 SM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하이브에서 추천한 이사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이때 SM의 주주와 임직원, 팬, 그리고 아티스트는 후순위로 밀릴 것입니다. 결국 하이브의 SM 경영권 확보는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SM은 이제 SM 3.0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사내이사는 모두 사임하고, 독립성·전문성·다양성을 갖춘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6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모든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으로 구성되어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사회 기능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산하 위원회를 두는 한편 SM의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효율화 시키고, 모든 경영 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팬과 주주를 중심에 둘 것입니다. 저 역시 독립적인 감사로서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제28기 정기주주총회는 SM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주주가치 하나만을 기준으로,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감사
박준호 올림

SM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인) 입장문 (1)

SM 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측의 가치분 신청 및 하이브 인수설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인) 입장문

- 우리는 하이브를 포함한 외부의 모든 적대적 M&A를 반대한다.
-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최대주주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SM은 특정 주주/세력에 의한 사유화에 반대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탁영준입니다.

저희 공동대표이사과 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인의 뜻을 담아 본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SM은 지난 2월 3일, 미래의 핵심 전략인 "라이크기획의 단일 프로듀싱에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로의 변화, SM 3.0"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그려 나가는 SM 3.0이 발표되자마자, SM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간 SM이 아티스트들과 함께 추구하여 온 가치들까지 모두 무시하는 지분 매각 및 인수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SM은 약 6백명의 임직원이 글로벌 No.1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일하고 있고, 이러한 모두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SM의 아티스트들이 자랑스럽게 K-POP을 선도해 온 회사입니다. 이제 SM은 SM 3.0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는 팬, 주주 중심의 회사로의 전환과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 아티스트와 함께 힘을 모아 이번에 보도되고 있는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7일 발표된 SM과 카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SM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SM 3.0의 첫 걸음으로서, SM이 보유한 IP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SM이 그리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에 대하여 카카오 측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여 왔습니다. 결국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최대주주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SM은 아티스트의 IP를 그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부터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개인사업체인 라이크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SM의 창업자이자 현재의 K-POP을 만든 개척자로서, 이 전 프로듀서의 역량과 지금까지 성취하여 온 업적에 대하여는 SM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싱 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SM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인) 입장문 (2)

SM 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측의 가치분 신청 및 하이브 인수설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인) 입장문

(계속)

하지만 작년부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홀로 매년 영업이익의 상당한 부분(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 27%부터 최고 199%까지)을 수취하는 구조로 인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자, SM 내부에서도 점차 이러한 문제점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SM과 SM의 아티스트를 누구보다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SM은 주주들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한 지점들에 관하여 원점에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성을 다하여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2022년 9월 15일 계약 조기종료 통보를 하였고, 2022년 10월 14일 당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SM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약 6백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SM 아티스트들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SM은 2022년 30여건의 음반을 발표하였으며, 이 음반 발매를 위해 매주 400여곡 이상의 데모곡을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음반의 컨셉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SM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SM 3.0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명예가 집중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집단 지성이 모여 함께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고, 그 기쁨과 보상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M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임직원 및 주주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팬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SM 3.0 사업 전략의 후속 발표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0일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 배상

SM 평직원 협의체 성명문

SM 평직원 협의체 성명문

‘불법, 탈세’ 이수만과 함께하는 하이브,SM에 대한 적대적 M&A 중단하라

이수만 前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불법, 탈세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던 경쟁사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SM 구성원들은 이수만 前 총괄 프로듀서의 사익 편취와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철저히 이용되어 왔다. SM 3.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하이브의 불법과 편법에 이용당할 수 없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평직원 208명은 이수만 前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의 불법적 결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아래 내용을 성명문으로 발표한다.

1. 우리는 KPOP의 문화적 다양성과 SM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SM의 문화는 하이브의 자본에 종속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의 반성과 SM 3.0 멀티프로듀싱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우리의 팬과 아티스트가 피해 입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한다.
3. 우리는 하이브의 적대적 M&A와 편법적 이사회 진입 시도에 반대한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SM을 점령하려 하는 하이브에 저항할 것이다.

이수만은 SM과 Pink Blood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우리는 서울숲에 남아 SM과 Pink Blood를 지킬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SM엔터테인먼트 평직원 협의체 일동
(유닛장 이하 평직원 208명)

목차

1	핵심 요약	
	(1) Executive Summary	9
	(2) SM 3.0 전략 실행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	10
	(3) 전년比 6배 늘어난 배당금으로 업계 최고 수준 배당 성향	14
	(4) 최적 자본구조 관리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자본배치 / 주주환원 정책 도입	15
	(5) 이수만의 주주제안	16
	(6) 주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SM 이사회 의견	17
2	주주가치 중심의 선진적 지배구조 구축	
	(1)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축	24
	(2) SM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정관 도입	35
3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주요 의안 세부사항	
	(1)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1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SM 이사회 추천 3인)	48
	(4) 사외이사 선임의 건 (SM 이사회 추천 6인)	51
	(5)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SM 이사회 추천 2인)	58
	(7), (8)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

1.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2023년에 접어들면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대격변의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SM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와 팬, 아티스트를 위한 SM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SM은 지난 2월 3일부터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골자로 하는 SM 3.0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 전환, IP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1인의 외주 프로듀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및 선진화된 정관 도입을 통한 보다 선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였습니다.
- 1) 2022년은 본업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힘입어, 주당 1,200원(연결 당기순이익의 32% 수준)을 현금배당하고자 합니다.
- 2) 이사회의 책임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기타 정관변경의 건 관련 내용을 상정하였습니다.
- 3)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 후보들을 추천하였으며, 해당 이사 후보들은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일할 것입니다.
 - ✓ 기존 사내이사 전원은 지난 이수만 체제의 문제들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연임 없이 2023년 3월 부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이들을 대신할 사내이사 후보로 SM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주도해온 재무/회계/M&A 전문가 장철혁 CFO와 SM에서 20+년 근무해온 김지원 마케팅 센터장과 최정민 글로벌비즈니스 센터장을 추천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및 검증한 기업 거버넌스, 법률, 기술/플랫폼, 글로벌사업, 회계/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을 추천하며,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의 경우, SM의 지배구조 개선 캠페인을 주도해온 기업 거버넌스 및 M&A 전문가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SM 3.0 글로벌 확장 전략 관련 최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카카오 그룹과의 전략적 협업을 긴밀히 조율할 책임자로 장윤중 카카오엔터 GSO를 추천합니다.
- 추후 만들어질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당사 주요 임원 모두의 보상 중 최소 50% 이상을 SM 3.0의 목표 주가 달성과 연계하여,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 및 강력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그 외에 당사의 대주주였으나 최근 보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이수만이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3인, 사외이사 후보 3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1인, 비상근감사 후보 1인 선임안건과 정관 일부 변경안건도 상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1) 기본적으로 당사 기업가치 훼손의 장본인인 이수만의 주주제안일 뿐만 아니라, 2) 이수만 추천 사내이사 3인은 당사의 최대 경쟁사인 하이브 소속 인사로서 SM 및 SM 주주와의 심각한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되며, 3) 이수만 추천 이사 및 감사 후보 중에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독립성 우려가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4) 경쟁사에 의한 적대적 인수 과정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당사 및 당사 주주들과 이해관계 상충 우려가 있어 이수만 추천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모두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SM 3.0 전략 실행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

SM 3.0 핵심 전략

1

[IP 전략]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

- ▶ 세부내용 하기 별도자료 참조
'SM 3.0 : IP 전략 -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 (click. [website](#) / [Youtube](#))

2

[사업 전략] IP 수익화 전략 (음원, IP라이선스 등)

- ▶ 세부내용 하기 별도자료 참조
'SM 3.0 : IP 수익화 전략' (click. [website](#) / [Youtube](#))

3

[글로벌 전략] 글로벌 사업 확대 (일, 미, 동남아 및 기타)

- ▶ 세부내용 하기 별도자료 참조
'SM 3.0 : 글로벌 확장 및 투자 전략' (click. [website](#) / [Youtube](#))

4

[투자 전략] 글로벌 음악 퍼블리싱, 레이블 M&A, 팬덤 이코노미 비즈니스, 메타버스 등 투자

- ▶ 세부내용 하기 별도자료 참조
'SM 3.0 : 글로벌 확장 및 투자 전략' (click. [website](#) /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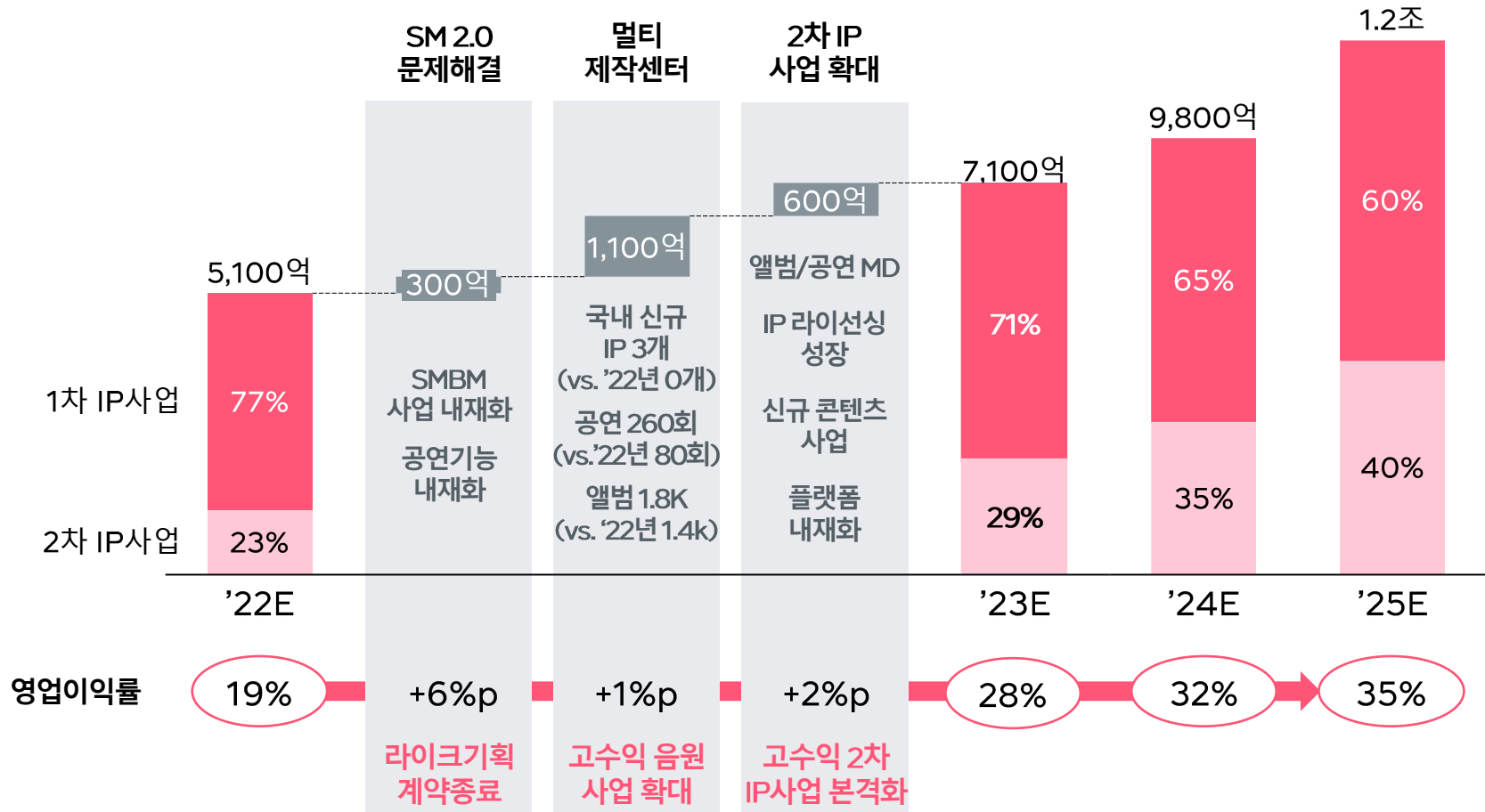
5

[주주환원] 최적 자본구조 관리 기반 선진적 자본배치 / 주주환원 정책 도입

- ▶ 본 의안설명서 15페이지 참고

SM 3.0을 통해 2025년 별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4,300억원 달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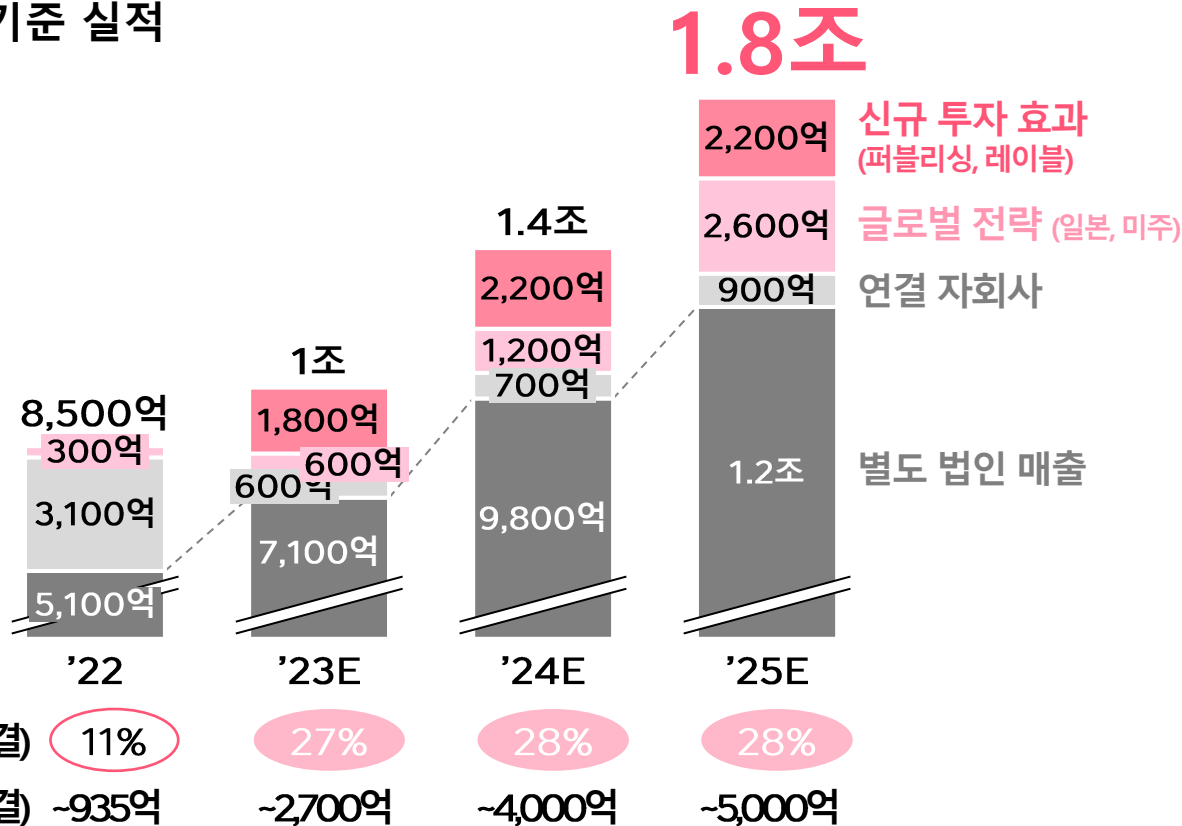
SM 2.0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멀티 제작센터를 도입하는 한편 2차 IP 사업을 확대하여 별도 기준 2025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4,300억원(영업이익률 35%)을 달성할 계획



실적 성장을 통해 2025년까지 주가 36만원 달성 목표

SM 3.0의 구현을 통해 K-Pop 업계 내 명실 상부 1위의 위상을 달성할 것이며
2025년까지 주가 36만원을 목표로 책임경영(임원 보상의 50% 이상을 주가에 연계)을 수행할 것

연결 기준 실적



'25년 목표 주가
36만원

Peer LTM P/EBIT 25.0x 대비
약 25% 할인한 수준, 추후 발표될
주주환원 효과는 미포함

임원 보상의 **50%** 이상을
SM 3.0 목표 주가
및 성과 달성에 연계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및
강력한 책임경영 수행

주주가치 중심의 SM 3.0 전략 실행을 위한 필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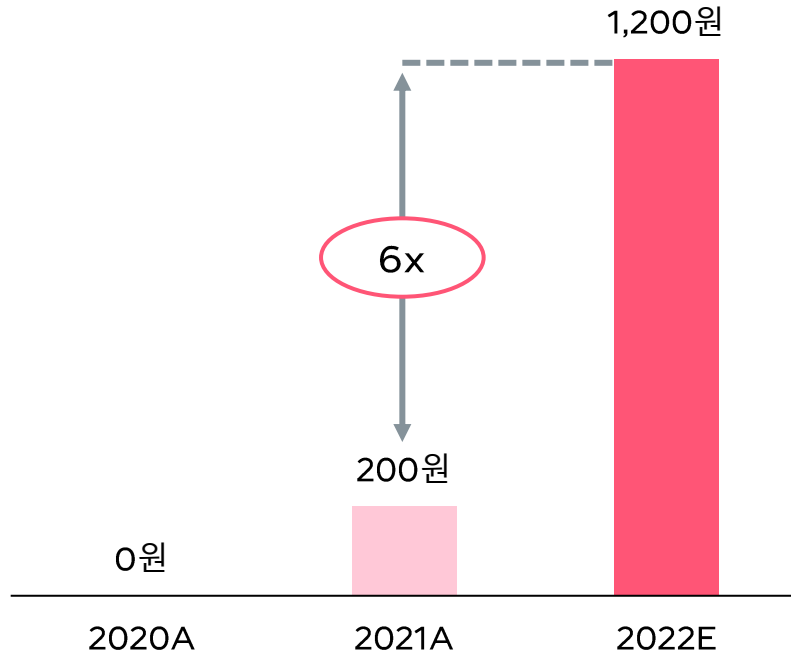


“ SM Entertainment는 2023년을 기점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선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SM 3.0 전략 실행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K-POP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는 글로벌 K-POP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전년比 6배 늘어난 배당금으로 업계 최고 수준 배당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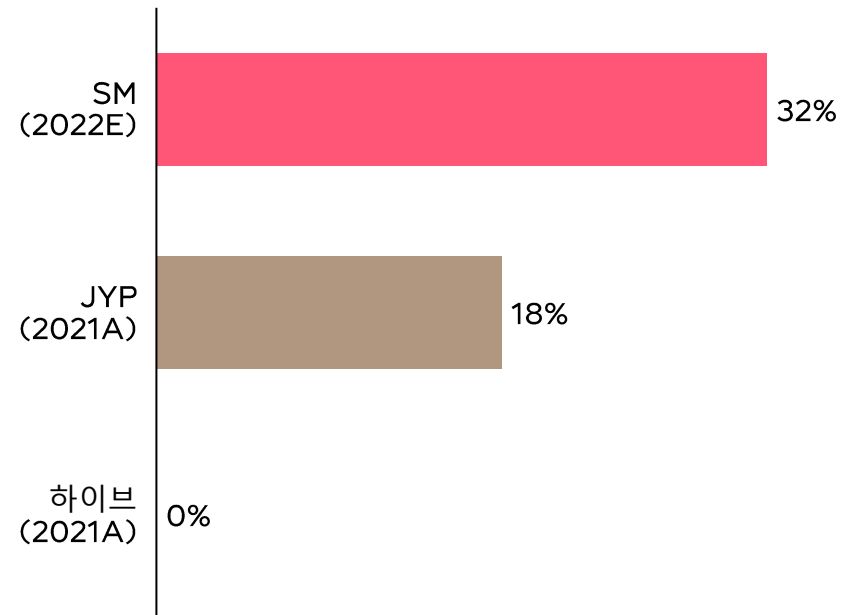
2022년에 본업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힘입어
주당 1,200원을 현금배당하고자 하며 이는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2%로 업계 최고 수준

SM 최근 3년 간 주당 배당금 추이



2021년 상장 이후 첫 배당에 이어
2022년 배당금 전년比 6배 증가

엔터 3사 연결 기준 배당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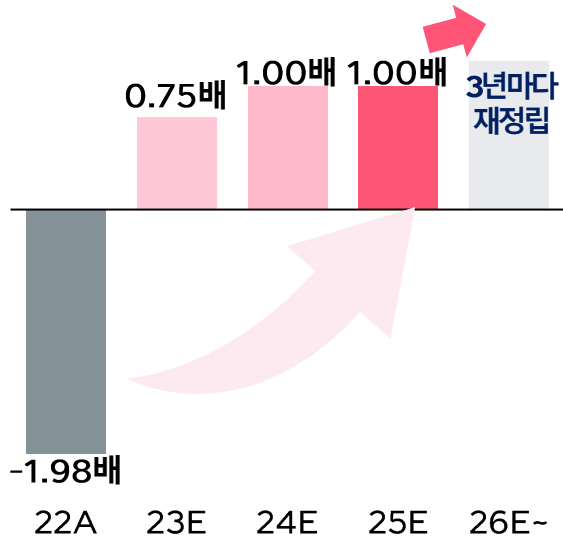
2022년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은 32%로 업계 최고 수준

최적 자본구조 관리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자본배치 / 주주환원 정책 도입

SM 3.0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목표 자본구조 및 주주 요구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자본구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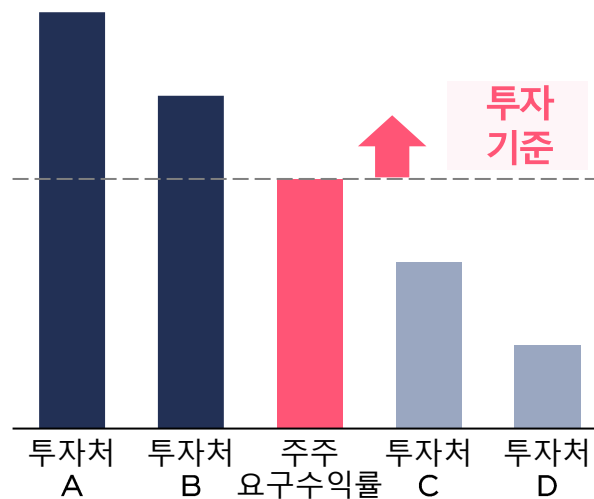
별도 영업이익의 0.5~1배 규모
("목표 레버리지 배수")로 순차입금 활용



※경영상 판단에 따라 최대 1배까지 자본구조 조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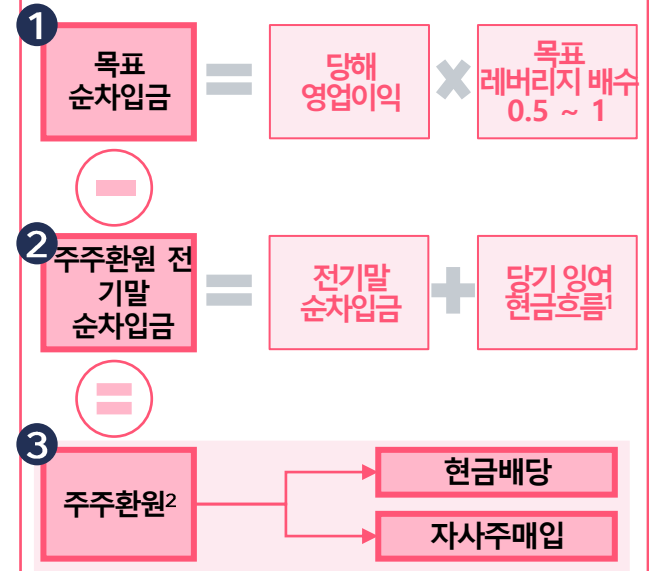
목표 요구수익률 기반 투자 정책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주주수익률이
목표 요구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투자 진행



주주환원 정책

매년 말 목표 순차입금과 실제 순차입금 간
차이만큼 주주환원



※단, 최소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주주환원

주1: 영업이익에서 비현금성 영업비용을 더한 후 각종 영업외비용/이익, 법인세, 각종 자본적 지출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차감한 숫자

주2: 기말 순차입금이 목표 순차입금보다 높은 경우, 주주환원은 하지 않고 차기말에 다시 평가. 단 최소 당기순이익의 30% 주주환원 ("최소 주주환원 성향")

이수만의 주주제안

서울무역센터우체국장

SM엔터테인먼트

발신의원인 주주 이수만

제목 주주제안,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서신

2003년, 회사자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라이크기획

드림메이커

SM브랜드마케팅

CT Planning Limited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이사진 귀중

1. 본인(주주 이수만)은 에스엠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제10항에 따라 에스엠이 향후 개최할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제안하는 사항들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에스엠의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고자 하며, 당 법무법인은 본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본 서신을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에스엠을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실현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고, 이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함께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엠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관 등이 선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을 담당하게 하여 회사 경영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만은 라이크기획, SM엔터프라이즈, CT Planning Limited 등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2003년 회사 자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모범적 지배구조 도입 및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주주제안을 진행

주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SM 이사회 의견 (1)

	의안 내용	SM 이사회 Comments	SM 이사회 권고
제 1호 의안	제 1-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금: 1주당 1,200원)	2022년은 본업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힘입어, 주당 1,200원 (연결 당기순이익의 32% 수준)을 현금배당하고자 함	찬성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1호 의안: 규정 정비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오탈자 수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찬성	찬성
	제 2-2호 의안: 정관 제24조의 2 신설의 건 (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안건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2-3호 의안: 정관 제30조 제5항 신설의 건 (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안건	찬성
	제 2-4호 의안: 정관 제34조의2 변경의 건 (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는 안건	찬성

주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SM 이사회 의견 (2)

	의안 내용	SM 이사회 Comments	SM 이사회 권고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5호 의안: 정관 제38조 변경의 건 (택 1)	제 2-5-1호 의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이사회 구성 원칙	이사회 의장을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사회 전체의 독립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2-5-2호 의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이사회 구성 원칙(이수만 주주제안)	이사회 의장을 매년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이사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우려	반대
	제 2-6호 의안: 정관 제38조의 2 신설의 건 (택 1)	제 2-6-1호 의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그 외의 위원회를 사내이사 아닌 이사로만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2/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찬성
		제 2-6-2호 의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이수만 주주제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에 위원총수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것을 규정하여 사내이사의 위원회 진입 가능성이 있음	반대
		제 2-7호 의안: 정관 제38조의3 신설의 건 (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안건	찬성

주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SM 이사회 의견 (3)

제 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안 내용	SM 이사회 Comments	SM 이사회 권고
	제 3-1호 의안: 사내이사 장철혁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장철혁 후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現 SM 최고 재무 책임자(CFO)이자 회계/세무/M&A 전문가로서, SM 3.0 전략 수행을 위한 재무 효율성 증대, 투자 의사결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SM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고 찬성	찬성
	제 3-2호 의안: 사내이사 김지원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지원 후보는 SM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現 SM 마케팅 센터장으로, 향후 SM 3.0 전략에 있어 핵심 축 중 하나인 IP 세일즈를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3-3호 의안: 사내이사 최정민 선임의 건	사내이사 최정민 후보는 SM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現 SM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으로, 향후 SM 3.0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3-4호 의안: 사내이사 이재상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사내이사 이재상 후보는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이수만 측 제안 인물이자, 현재 적대적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쟁사 하이브의 임직원으로, 하이브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반대
	제 3-5호 의안: 사내이사 정진수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사내이사 정진수 후보 또한 경쟁사 하이브의 임직원으로, 하이브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우려가 있으며, NCSOFT 재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넷마블게임즈와 상호 지분 투자를 실행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으므로 반대	반대
	제 3-6호 의안: 사내이사 이진화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사내이사 이진화 후보는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이수만 측 제안 인물이자, 현재 적대적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쟁사 하이브의 임직원으로, 하이브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반대

주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SM 이사회 의견 (4)

제 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의안 내용	SM 이사회 Comments	SM 이사회 권고
	제 4-1호 의안: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규식 후보는 現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자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거친 거버넌스/법률/투자 전문가로서 SM의 지속가능한 선진 거버넌스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4-2호 의안: 사외이사 김태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태희 후보는 국세청 15년 근무 경력의 세무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4-3호 의안: 사외이사 문정빈 선임의 건	사외이사 문정빈 후보는 ESG 경영,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SM의 선진 거버넌스 도입,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4-4호 의안: 사외이사 민경환 선임의 건	사외이사 민경환 후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사인 Blocore의 파트너로서 SM의 NFT, 블록체인 등 신사업 확장 시 전략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4-5호 의안: 사외이사 이승민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승민 후보는 대한민국 및 영국 변호사이자 IP, 국제 분쟁 전문가로서 SM의 글로벌 IP 사업 확대 시 필요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찬성
	제 4-6호 의안: 사외이사 조성문 선임의 건	사외이사 조성문 후보는 음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Chartmetric의 대표로서 SM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음반/음원 사업 확장 시 전략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	찬성
	제 4-7호 의안: 사외이사 강남규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사외이사 강남규 후보는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이수만 측 제안 인사이자 당사 이사회 추천 후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반대	반대
	제 4-8호 의안: 사외이사 홍순만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사외이사 홍순만 후보는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이수만 측 제안 인사이자 당사 추천 후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계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반대	반대
	제 4-9호 의안: 사외이사 임대웅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사외이사 임대웅 후보는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이수만 측 제안 인사이자 당사 추천 후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ESG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반대	반대

주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SM 이사회 의견 (5)

	의안 내용	SM 이사회 Comments	SM 이사회 권고
제 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 5-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창환 선임의 건	이창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SM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및 거버넌스 개선 캠페인을 주도해온 얼라인파트너스의 대표이자 기업 거버넌스 및 M&A 전문가로서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찬성
	제 5-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장윤중 선임의 건	장윤중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SM 3.0 전략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카카오의 추천 인사로 양사간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전 Sony Music Korea의 대표이사이자 현재 카카오엔터의 GSO를 역임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문가로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찬성
	제 5-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병무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박병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NCSoft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해온 이력이 있으며, 2015년 NCSoft에서 정진수 사내이사 후보와 함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넷마블게임즈와 상호 지분 투자를 실행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으므로 반대	반대
제 6호 의안: 비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 6-1호 의안: 비상근감사 최규담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최규담 비상근감사 후보는 2015년 NCSoft에서 재무전략실장으로서 정진수 사내이사 후보와 함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넷마블게임즈와 상호 지분 투자를 실행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으며, 사내이사 후보 정진수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박병무와의 근무 경험이 있으므로 감사로서 요구되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반대	반대

2. 주주가치 중심의 선진적 지배구조 구축

2. 주주가치 중심의 선진적 지배구조 구축 요약



2-1.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축

SM 이사회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TO-BE 이사회 키워드/특징	책임	임시 사추위 추천 인사	선진적 기업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이수만 중심 SM 이사회의 과오를 인정하고 기존 사내이사 3인 전원은 후보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심사 검증하여 사외이사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주행동을 이끈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
	최고의 엔터 업계 전문성	일반 주주를 위한 호민관	적극적 전략적 협업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인사이자 아티스트 홍보 분야, 글로벌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SM 3.0 전략 실행을 지원할 김지원 후보와 최정민 후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 김규식 후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 3.0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카카오엔터 장윤중 GSO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
	경영관리에 최적화된 인물	33%의 여성 사외이사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주도해오고, 재무/회계/M&A에 전문성을 가진 장철혁 SM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인의 여성 사외이사 후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 3.0 전략 실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M&A/투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진을 추천
SM 추천 이사 중 사외이사 후보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			

2-1.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외이사 최종 후보 선정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천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 투명성 강화 및 주주 신뢰 제고

임시 사추위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



SM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계획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30명 이상의 후보군 구성

글로벌 컨설팅펌 및 서치펌과 함께 30명 이상 사외이사 후보자 풀 구성



후보군의 독립성 및 적격성 검증 및 Board skill matrix를 감안하여 최적 후보군 구성

사외이사의 상법상 요건, 회사와의 이해상충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및 평판조회 실시
30명 이상의 후보군을 선별하여 Board skill matrix의 모든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군 구성



각 후보의 이사직 수락 여부 확인하고 최종 6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최종 후보자: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민경환 Blocore 파트너,
이승민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조성문 Chartmetric 대표

2-1. SM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_Board skill matrix

			주주권익 보호		NFT, 팬플랫폼	미국/일본 확대	비유기적 성장			
			경영	K-Pop	거버넌스	법률	기술/플랫폼	글로벌	재무/M&A	회계/세무
사내 이사	장철혁(男)	SM엔터테인먼트 CFO	✓						✓	✓
	김지원(女)	SM엔터테인먼트 마케팅센터장		✓						
	최정민(女)	SM엔터테인먼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		✓				✓		
사외 이사	김규식(男)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			✓	✓				
	김태희(女)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세무 전문)				✓				✓
	문정빈(男)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SG 전문)			✓			✓		
	민경환(男)	Blocore 파트너	✓				✓		✓	
	이승민(女)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IP 전문)				✓		✓		
	조성문(男)	Chartmetric 대표	✓	✓			✓	✓		
기타 비상무 이사	이창환(男)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				✓	
	장윤중(男)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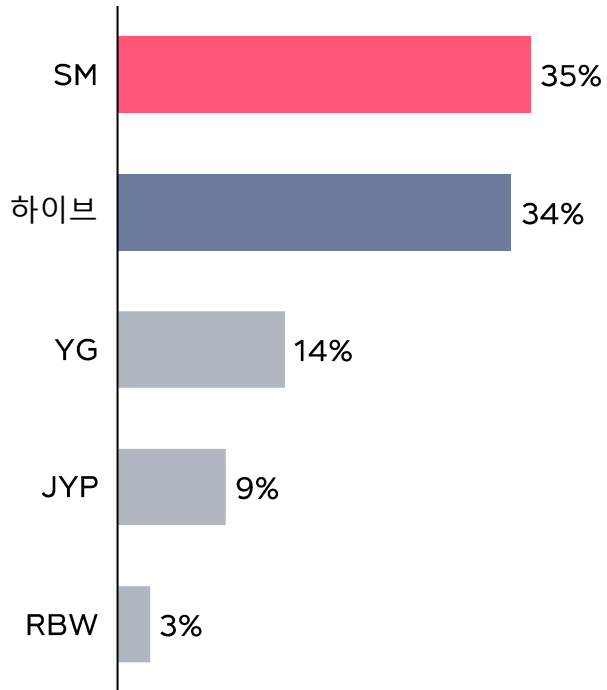
2-1. 이수만 주주제안 추천 이사 및 감사 후보_Board skill matrix

			주주권익 보호		NFT, 팬플랫폼	미국/일본 확대	비유기적 성장			
			경영	K-Pop	거버넌스	법률	기술/플랫폼	글로벌	재무/M&A	회계/세무
사내 이사	이재상(男)	HYBE America 대표	✓	✓				✓		
	정진수(男)	하이브 최고법무책임자				✓				
	이진화(女)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							
사외 이사	강남규(男)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無	✓	無			
	홍순만(男)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임대웅(男)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기타비상무 이사	박병무(男)	VIG Partners 대표파트너				✓			✓	
비상근 감사	최규담(男)	NCSOFT 상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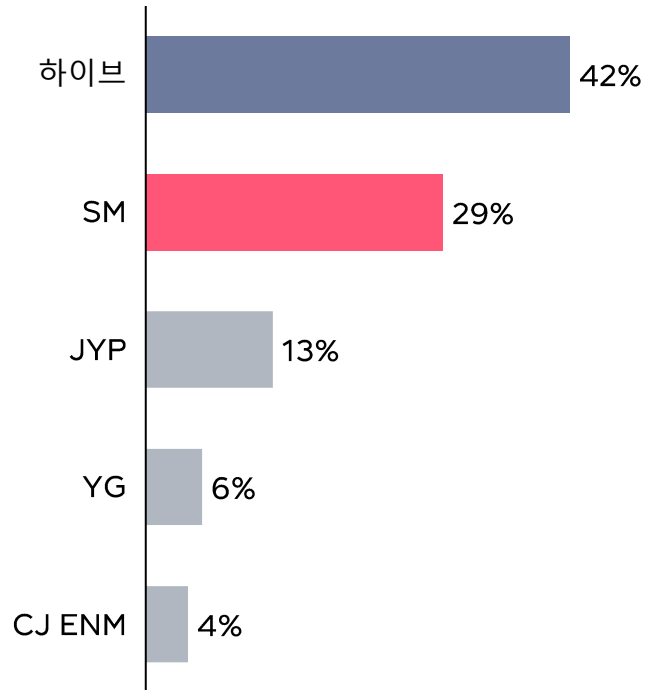
이수만 추천 이사 및 감사 후보 중 거버넌스, 기술/플랫폼 전문성 지닌 인사 부재

2-1. SM와 하이브는 K-Pop 업계 1~2위를 다투는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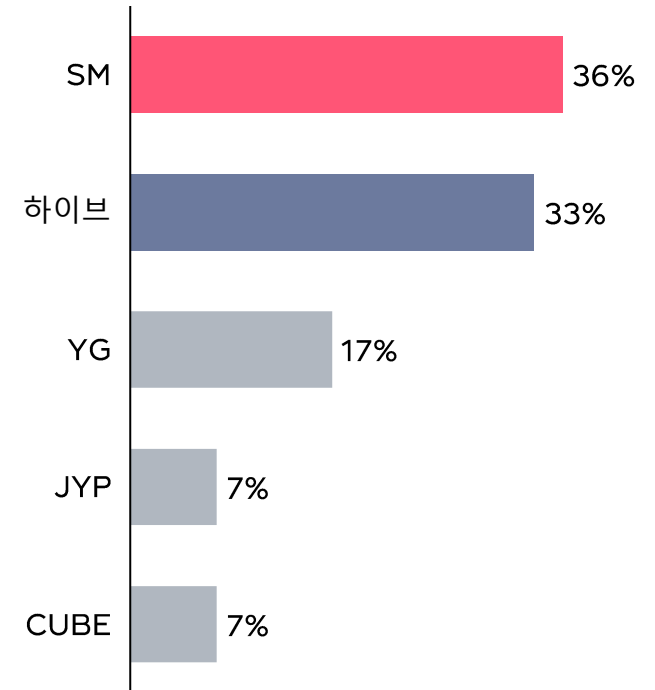
국내 매출 기준 점유율



음반 차트 기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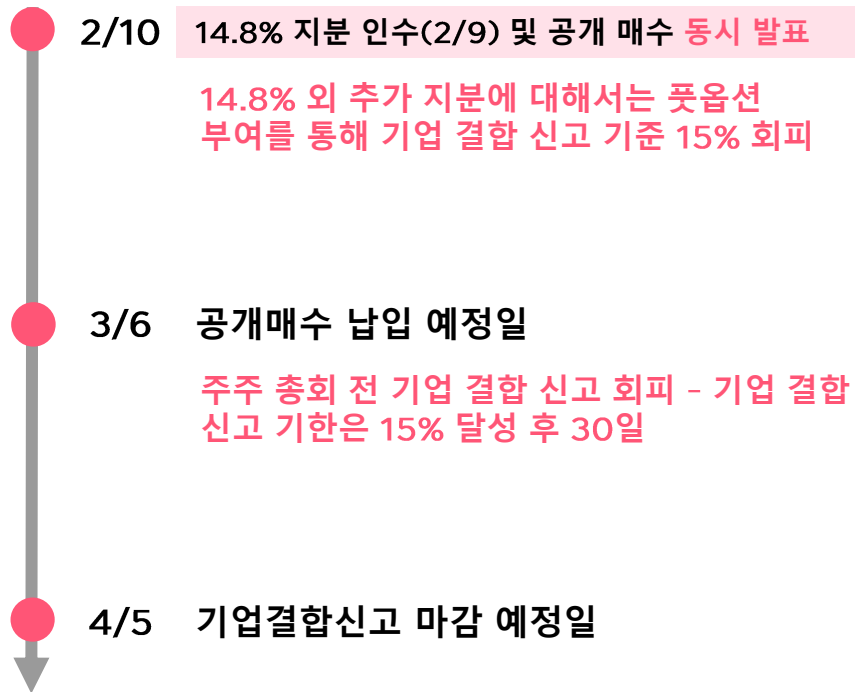


디지털 음원 차트 기준 점유율



2-1. 하이브의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회피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공개매수를 동시에
계획했음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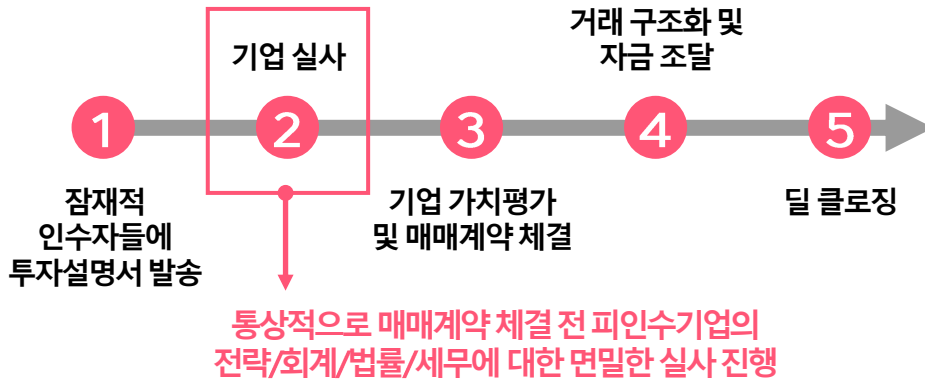
공정위 심사에 따른 주요 리스크

반려	대량 지분 재매도로 주가 급락 가능성 높음
조건부 승인	공정위 조건 준수를 위한 SM 사업 축소 리스크
심사 지연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성장 사업 추진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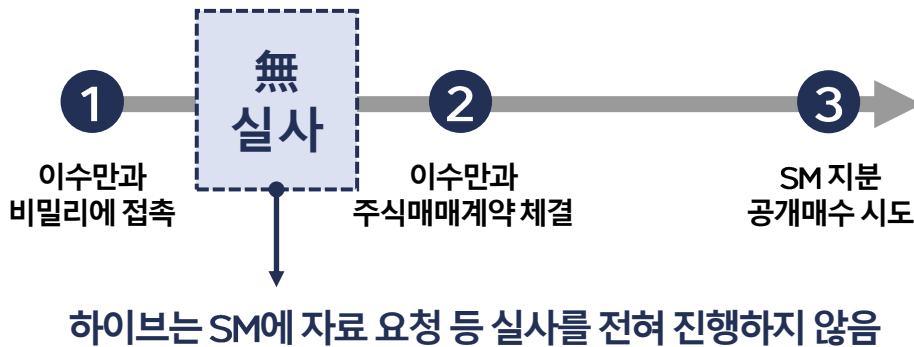
2-1. 1조원 규모의 “Big Deal”임에도 실사 없는 졸속 인수 시도

통상적인 M&A 프로세스에서는 면밀한 실사가 수반되나 하이브는 SM에 대한 어떠한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도 이러한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를 이사 후보의 반대 사유로 삼은 전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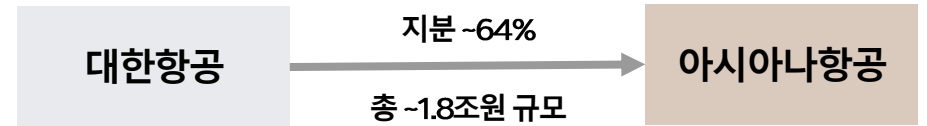
일반적 M&A 프로세스 vs 하이브의 SM 인수 시도



vs.



‘20년 대한항공 - 아시아나 인수계약 체결 시 실사 미실시



총 ~1.8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거래였음에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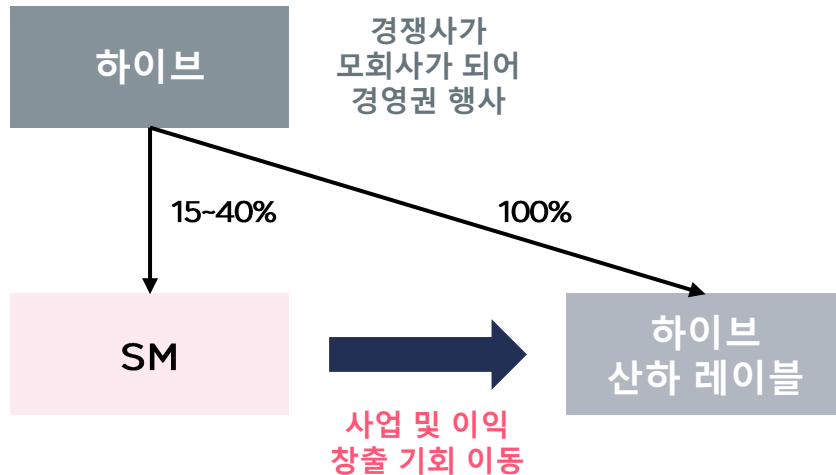
국민연금 (2021년 3월)

“아시아나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 계약상 불리한 내용 우려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의 이유로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 및 임채민 사외이사 선임 반대

2-1. 하이브 측 인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된다면? (1)

SM과 동일하게 엔터 사업을 영위중인 하이브 임직원이 SM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SM의 경영 핵심 정보가 하이브에 유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들은 하이브에 유리하나 SM에는 불리한 안건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있음

적대적 M&A 시 지배구조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 (예시)

아티스트 및 앨범 출시

한정된 신곡 발매 최적 횟수(연 100회)를 상회하는 양사 신곡 발매 수
→ SM 아티스트 후순위화 가능

팬 플랫폼 및 커머스

위버스 입점 시 SM의 플랫폼 사업 포기
기업가치 하락 및 커머스 사업 기회 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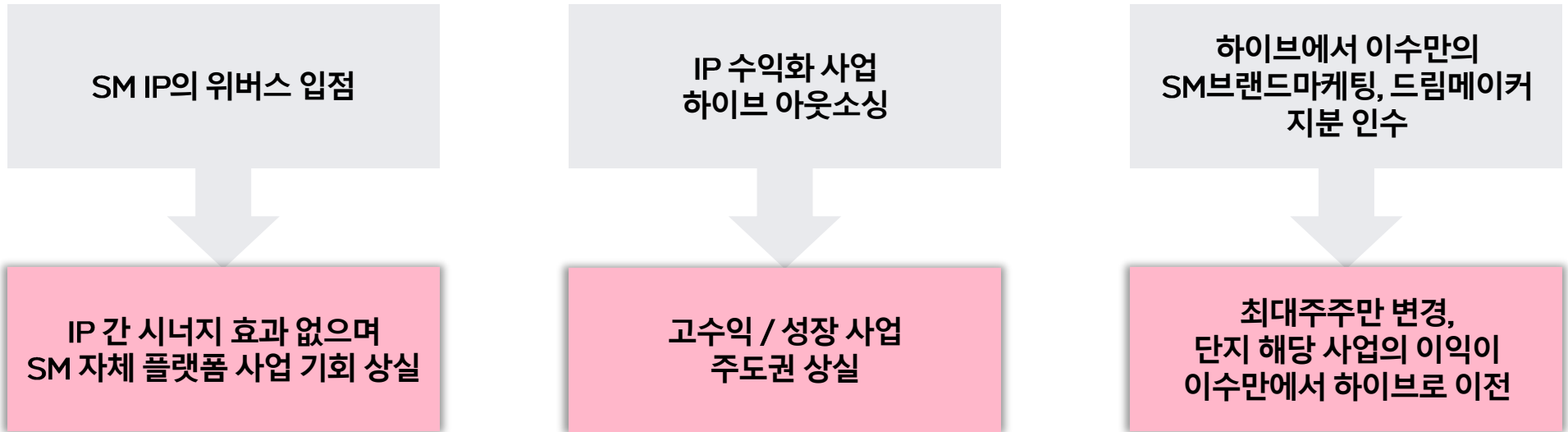
신사업 진행

SM 3.0 전략 추진 위한 신규 사업 기회 실기
→ 하이브 100% 지분 보유 자회사에 우선 배정 가능성 큼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15~40%만 보유하게 되는 현 적대적 M&A 시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하이브 주주와 SM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SM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이브 경영진 입장에서는 하이브와 하이브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 존재

2-1. 하이브 측 인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된다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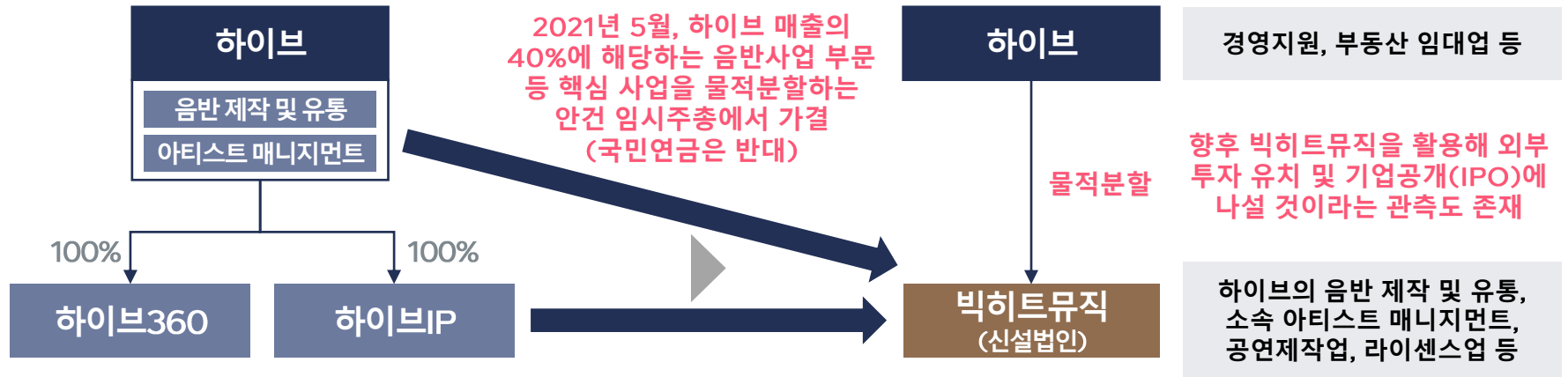
하이브가 이야기하는 SM 인수 시의 시너지는 대부분 하이브 주주를 위한 것이지 SM 주주의 것이 아님



SM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이브 주주와 SM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필연적

2-1. 이수만 추천 사내이사 후보 2인, 국민연금이 반대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 건에 관여한 이력 존재

이수만 측에서 추천한 이재상, 이진화 후보는 과거 하이브의 임원 및 주요 직책자로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로 국민연금이 반대한 건이었던 하이브 핵심 사업(‘빅히트뮤직’)의 물적분할에 관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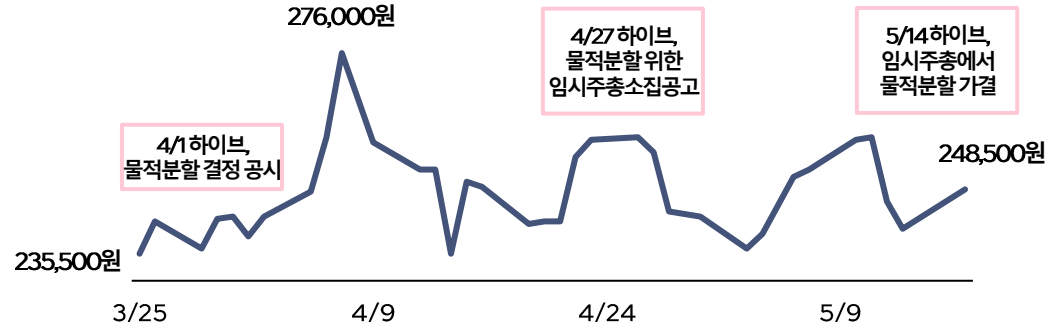
2021년 빅히트 물적분할 당시 하이브 이재상, 이진화 사내이사 후보 직책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진화	경영기획실장

'23년 SM 사내이사 후보자 (이수만 주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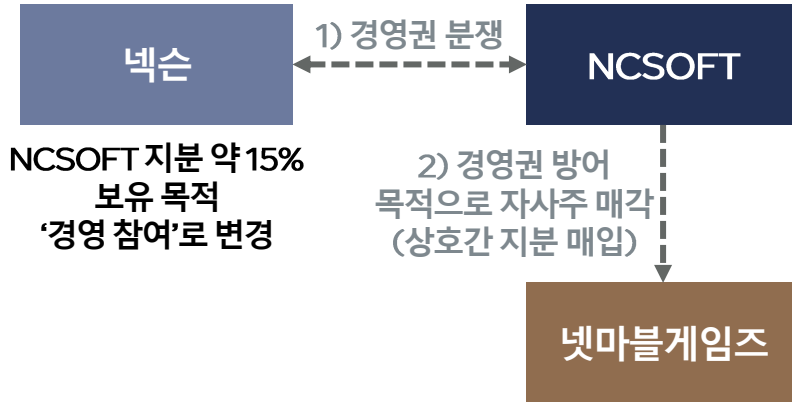
'23년 SM 사내이사 후보자 (이수만 주주제안)

하이브, 빅히트뮤직 물적분할 전후 주가 추이



2-1. 이수만 추천 이사 및 감사 후보 중 일부 또한 주주가치 훼손 이력 존재

이수만 측에서 추천한 정진수, 박병무, 최규담 후보는 과거 NCSoft의 임원, 주요 직책자로 함께 재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 지분 투자 결정으로 NCSoft 주가를 훼손시킨 이력이 존재함



NCSoft, 넷마블게임즈 보통주 29,214주 취득 (지분 9.8%)
주당 약 1,300만원, 기존 텐센트 투자 가격 대비 1.8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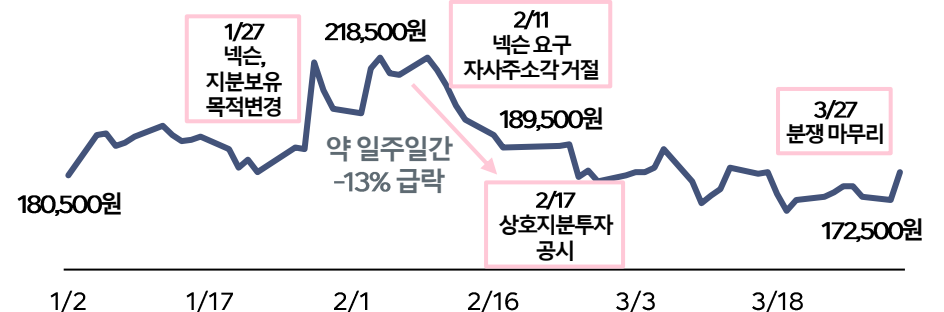
넷마블게임즈에 NCSoft 자사주를 매각하고, 넷마블게임즈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면서 경영권 방어 위한 주주가치 훼손 발생

넷마블게임즈에 NCSoft 자사주 195만주 시장가에 매각 (지분 8.9%)

2015년 당시 NCSoft 소속 정진수, 박병무, 최규담 후보 직책

정진수	최고운영책임자(COO)	'23년 SM 사내이사 후보자 (이수만 주주제안)
박병무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자문)	'23년 SM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수만 주주제안)
최규담	재무전략실장	'23년 SM 비상근감사 후보자 (이수만 주주제안)

NCSoft, 넷마블게임즈 상호지분투자 전후 주가 추이



2-2. SM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정관 도입

당사가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주주제안 안건 중 합리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조

SM 이사회 제안



이사회 전체의
독립성 확보

vs. 이수만 주주제안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 선임 →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가능성 존재



독립적 사외이사의
권한 확대

vs. 이수만 주주제안

사추위,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위원회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함 → 사내이사의 포함 가능성 존재



주주 권리 보호 및
거버넌스 개선 목적의
안건은 적극 수용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명시 /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설치 /
준법지원인 선임

2-2. 이수만/하이브의 SM 주주제안과 하이브 실제 정관 및 주주환원 비교

구분 (정관변경)	이수만/하이브의 SM 주주제안	하이브 실제 정관
이사회의 구성	대표이사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	하이브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전자투표제	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정관에 명시	하이브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준법지원인	적극적인 준법통제 기준 및 준법지원인 설치를 통해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위반 리스크를 낮추고자 함	하이브는 준법지원인 설치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p>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SM은 2018년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한 이후 2019년 중 준법지원인¹⁾을 두었으나, 하이브는 2020년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분기까지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음</p>		
구분 (주주환원)	이수만/하이브의 SM 주주제안 관련 보도자료	하이브의 주주환원
주주환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후 (SM) 당기순이익의 30% 내에서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을 요구	2022년까지 배당한 적이 없음

3.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주요 의안 세부사항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목차) (1)

1) 제28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1주당 배당금 : 1,200원)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규정 정비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제안)

2-2) 정관 제24조의2 신설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2-3) 정관 제30조 제5항 신설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2-4) 정관 제34조의2 변경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2-5) 정관 제38조 변경의 건

2-5-1)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이사회 구성 원칙(이사회 제안)

2-5-2)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이사회 구성 원칙(이수만 주주제안)

2-6) 정관 제38조의2 신설의 건

2-6-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이사회 제안)

2-6-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이수만 주주제안)

2-7) 정관 제38조의3 신설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목차) (2)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장철혁

3-2) 사내이사 김지원

3-3) 사내이사 최정민

3-4) 사내이사 이재상 (이수만 주주제안)

3-5) 사내이사 정진수 (이수만 주주제안)

3-6) 사내이사 이진화 (이수만 주주제안)

4) 사외이사 선임의 건

4-1) 사외이사 김규식

4-2) 사외이사 김태희

4-3) 사외이사 문정빈

4-4) 사외이사 민경환

4-5) 사외이사 이승민

4-6) 사외이사 조성문

4-7) 사외이사 강남규 (이수만 주주제안)

4-8) 사외이사 홍순만 (이수만 주주제안)

4-9) 사외이사 임대웅 (이수만 주주제안)

5)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5-1) 기타비상무이사 이창환

5-2) 기타비상무이사 장윤중

5-3) 기타비상무이사 박병무 (이수만 주주제안)

6) 비상근 감사 최규담 선임의 건 (이수만 주주제안)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FY2022	FY2021	YoY	주요 내용
매출액	8,484	7,016	20.9%	아티스트 팬덤 확대 및 음반 판매 호조 영향
영업이익	935	675	38.5%	외형 증가로 영업레버리지 효과 발생
당기순이익	891	1,332	-33.1%	전년동기 일회성수익으로 역기저효과 발생

2)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FY2022	FY2021	YoY	주요 내용
자산총계	14,652	13,149	11.4%	유동자산 (YoY +8.7%), 비유동자산 (YoY +15.3%)
부채총계	5,721	5,265	8.7%	유동부채 (YoY +14.7%), 비유동부채 (YoY -10.6%)
자본총계	8,931	7,884	13.3%	이익잉여금 (YoY +32.4%), 자본잉여금 (YoY +1.4%)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억원)	FY2022	FY2021	YoY	주요 내용
이익잉여금처분액	(312)	(51)	456.9%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200원 (연결 배당성향 기준 32%)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2) 정관 제24조의2 신설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AS-IS	TO-BE
<p>(신설)</p>	<p>제24조의2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 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p> <p>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확인 절차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p>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 정관 제30조 제5항 신설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AS-IS	TO-BE
(신설)	<p>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p> <p>⑤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2-4) 정관 제34조 2 변경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AS-IS	TO-BE
<p>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p> <p>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2(이사의 의무)</p>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5) 정관 제38조 변경의 건

2-5-1)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이사회 구성 원칙(이사회 제안)

AS-IS	TO-BE
<p>제38조(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다른 이사들이 연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38조(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p> <p>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이 회의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다른 이사들이 연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이사회 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5) 정관 제38조 변경의 건

2-5-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이사회 구성 원칙(이수만 주주제안)

AS-IS	TO-BE
<p>제38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다른 이사들이 연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38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p> <p>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이 회의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이사회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6) 정관 제38조의2 신설의 건

2-6-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이사회 제안)

AS-IS	TO-BE
(신설)	<p>제38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거버넌스위원회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p>② 제1항의 위원회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각 3인 이상의 사내이사 아닌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p> <p>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6) 정관 제38조의2 신설의 건

2-6-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이수만 주주제안)

AS-IS	TO-BE
<p>(신설)</p>	<p>제38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거버넌스위원회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p>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총수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p> <p>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7) 정관 제38조의3 신설의 건(이사회 제안 및 이수만 주주제안)

AS-IS	TO-BE
<p>(신설)</p>	<p>제38조의3(준법지원인)</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선임하고, 상법 제542조의13이 정한 바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13이 정한 바에 따른다.</p>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_장철혁 선임의 건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회계·M&A 전문가이자 現 SM엔터테인먼트 CFO로서 SM 3.0 전략 실행 시의 재무 효율성 제고 및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



장 철 혁 이사/ 1974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現) SM엔터테인먼트 CFO
- 스킨푸드 / 동아탱커 CFO
- 바디프랜드 해외사업부장, M&A 팀장
- 삼일회계법인 Deal 2본부 Director
- KPMG 감사 2본부
- 공인회계사 (KICPA, 1997)

신규선임

[주요 활동]

- KPMG, PwC에서 13년 동안 회계감사 및 기업 인수/매각 자문, 인수실사, 기업가치평가, 부실채권 매각/매수 자문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바디프랜드의 해외사업을 담당하여 상해·LA 자회사 설립 및 매장 오픈, 해외 자회사 세팅, B2C/B2B 세일즈까지 모든 사업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
- 파인트리파트너스 PE 피투자회사인 스킨푸드와 동아탱커에서 CFO 업무를 수행하며 부실기업 턴어라운드를 위한 조직개선 작업 수행
- 2022년 SM에 CFO로 입사해 회계, 세무, 재무 및 IR 업무 담당

[향후 직무수행계획]

- **SM 3.0 전략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해 재무 효율성을 높일 것**
- 음악 퍼블리싱 자회사 설립 및 관련 투자, 사내외 레이블 독립 의사결정, 타 음악 분야 레이블 인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투자만을 실행할 것
- 현재 SM이 구축 중인 ERP 프로젝트를 2023년에는 회사 내 안착시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회계를 시스템화 할 것

3-2. 사내이사 선임의 건_김지원 선임의 건

2000년 SM 입사 후 20여년 간 소속 아티스트들의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現 SM엔터테인먼트 마케팅센터장으로, SM 3.0에 최적화된 대외 홍보 전문성 확보 및 글로벌 PR 전략 수립을 리드 가능



김 지원 이사/ 1976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청주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 (現) SM엔터테인먼트 마케팅센터장
- 에스엠프렌즈 대표이사
- SM엔터테인먼트 Media Planning Division 본부장
- SM엔터테인먼트 언론홍보실 실장
- SM엔터테인먼트 언론홍보팀 팀장

신규선임

[주요 활동]

- 2000년 입사 후 언론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여년 간 소속 아티스트들의 대외 홍보를 총괄하였고 언론과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IP 가치를 제고
- 2020년 마케팅 센터장을 맡은 이후 전통적 언론 매체에 더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소속 아티스트 마케팅 전략 수립
- IT 기술을 활용해 소속 아티스트와 글로벌 팬덤의 공식 소통 창구를 열고 콘텐츠 기획해 오프라인에 한정되었던 팬덤과의 소통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팬더스트리 강화

[향후 직무수행계획]

- **SM 3.0 전략의 핵심인 멀티 제작센터 구축에 맞추어 대외 홍보를 아티스트별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IP 가치 극대화를 위한 IP 아카이브 관리 및 수익화에 힘써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
- SM 팬더스트리 확장을 위해 팬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팬덤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확대에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
- SM 3.0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국내외 시장을 통합하는 포괄적 대외 PR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기여할 것**

3-3. 사내이사 선임의 건_최정민 선임의 건

International A&R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전문성을 지닌 現 SM엔터테인먼트 Global Business Center장으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한 SM 3.0 하 글로벌 전략 수립 및 해외 지사 수익 극대화에 기여 가능



최 정 민 이사/ 1978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조지아주립대학교 음악경영학(Music Management) 학사
- (現) SM엔터테인먼트 Global Business Center장
- SM엔터테인먼트 International Support Center 실장
- SM엔터테인먼트 International Marketing Team 팀장
- SM엔터테인먼트 International Agency Team
- SM Entertainment USA 제작/마케팅 매니저
- SM엔터테인먼트 A&R/퍼블리싱 팀
- SM엔터테인먼트 캐스팅/트레이닝 팀

신규선임

[주요 활동]

- Global Marketing / Business 부서의 센터장으로서 SM 아티스트의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 각 파트너들과의 협업 수행
- SMTOWN 공연의 기획과 진행 업무를 맡아 LA, 프랑스에서 성공적 공연 완수
- SM Entertainment USA를 설립해 미국 지사설립 업무 및 아티스트 BoA의 미국 앨범제작을 병행하였고, 유명 안무가 및 신인 안무가의 발굴과 관리에 주력
- 2004년부터 유럽, 미국, 호주 등을 오가며 해외 작곡가 및 프로듀서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내에서 International A&R 업무영역을 새롭게 개척

[향후 직무수행계획]

- SM 3.0 하에서는 국내와 해외 간 음반, MD 발매 시기가 분리되지 않고 곡 발매와 동시에 전세계 팬들이 곡을 듣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홍보 시너지를 제고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글로벌 투어를 병행하여 세계 각 지역의 팬들이 SM의 퍼포먼스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
- 해외 지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본사와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인재채용, 예산집행, 전략, 사업구조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사업개편 및 확장을 통해 해외 지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것

4-1. 사외이사 선임의 건_김규식 선임의 건 (1)

변호사,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으로로서 SM 3.0의 성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거버넌스 구축 및 주주가치 제고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



김 규 식 이사/ 1968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 (現)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現) Ternary Fund Management 포트폴리오 매니저
- (現)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
- 수림자산운용 전무이사
-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 법무법인 제헌 변호사

신규선임

[주요 활동]

- 변호사로서 다수 주주행동주의 펀드 및 ESG 펀드를 10년 이상 자문하였고 기업거버넌스 관련 법 규정에 정통함
- 브레인자산운용 상근 법률고문 시절 브레인자산운용이 SM의 주요 주주였으며 SM의 성장 저해 요인들에 대한 이해도 높음
- 2019년부터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중임되었음
- Ternary Fund Management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성장주에 주로 투자 중

[향후 직무수행계획]

- 변호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역임하며 쌓은 투자/법률/기업거버넌스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SM의 기업 거버넌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축하는 한편 SM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존해 SM 3.0의 성공을 도울 것**
- 이사회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주주 전체의 이익 성장을 위해 충실의무를 확고히 수행할 것

4-1. 사외이사 선임의 건_김규식 선임의 건 (2)

김규식 사외이사 후보(現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의 파크시스템스 이사회 참석 확인서

Park Systems Corp. www.parksystems.com

KANC 4E Gwanggyo-ro 109, Suwon 16229, Korea Tel. +82-31-546-6800 Fax. +82-31-546-6805

Enabling Nanoscale Advances



문서번호 : GA2023- 07호
 작성일자 : 2023년 02월 20일
 수 신 : 김규식 사외이사
 참 조 :
 발 신 : 파크시스템스㈜ 전무이사 조연욱
 제 목 : 이사회 참석 확인서

- 귀하께서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항상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2021년도 정기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일자	참석여부	참석방법
2021.02.10	참석	Zoom
2021.05.13	참석	Zoom
2021.08.11	참석	Zoom
2021.11.10	참석	대면참석

- 온라인 참석 증빙은 첨부 회의사진 참조

3. 다만 대면소집의 이사회였고 전자서명을 위한 IT 미비에 인하여 Zoom으로 참석한 김규식 이사의 서명을 의사록에 받지 못하여 공시자료에는 불참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항상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파크시스템스㈜ 경영지원부 전무이사 조 연 욱

날짜	이사회	증빙
2021-02-10	2021년 4분기 결산 이사회	
2021-05-13	2021년 1분기 이사회	
2021-08-11	2021년 2분기 이사회	

파크시스템스 공시자료 상 이사회 불참으로 표시된 것은 전자서명을 위한 IT 미비에 따른 것이며 사외이사 김규식 후보는 2021년 열린 모든 파크시스템스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였음

4-2. 사외이사 선임의 건_김태희 선임의 건

**약 26년 간 행정부 공무원, 법원 판사, 변호사로서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재무/조세/회계 분야에 특화된
現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서 SM의 내부통제시스템 확립 및 세무 이슈 대응에 기여 가능**



김 태 희 이사/ 1975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
- 39기 사법연수원 수료 (49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 (現)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現) 한국세법학회 이사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국세청

신규선임

[주요 활동]

- 국세청 공무원, 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26년 간 조세행정, 회사법, 기업범죄, 재무/조세/회계 분야의 분쟁해결 및 자문업무를 수행
- 민사합의부 및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으며 기업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 업무에 특화
-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법인의 조세, 재무/회계, 기업범죄 관련 컨설팅 및 수사대응, 재판수행에 특화
- ‘조세범 처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으며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 중

[향후 직무수행계획]

- 現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변호사이자 행정부 공무원, 법원 판사, 변호사로서 약 26년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로서, 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조세, 재무, 회계, 기업범죄, 행정제재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 위와 같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일원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 확립,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배분, 기업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4-3. 사외이사 선임의 건_문정빈 선임의 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국제경영 및 ESG / 지속가능경영 연구에 매진해 온 거버넌스 전문가이며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SM의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 가능



문 정 빈 이사/ 1972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現)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전략경영연구 편집위원장
- (現)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편집위원
- (現)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

신규선임

[주요 활동]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글로벌 전략과 ESG / 지속가능경영을 15년 째 연구 및 교육. 2007년 이후 ESG 관련 연구에 매진하여 16편의 ESG 주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 삼성그룹, LG그룹 등 다수의 국내 상장사에서 ESG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SERI CEO, 동아비즈니스리뷰 등의 매체를 통해 ESG 관련 기고를 해 옴
-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으로 재직하며 상장회사 CEO 배임 등을 포함한 기소 후 무죄판결 사건들에 대해 분석 및 평정

[향후 직무수행계획]

- ESG /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SM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통해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
- 회사 및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ESG 각 측면에서의 성과 제고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4. 사외이사 선임의 건_민경환 선임의 건

前 Google Play 한국 총괄 전무이자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 선도 회사인 現 Blocore 파트너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성장동력에 특화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



민 경 환 이사/ 1979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학사
- (現) Blocore 파트너
- Google Play 한국 총괄 전무, Google
- Global Product Partnerships 한국 리드, Google
- AdSense 한국 리드, Google

신규선임

[주요 활동]

- Blocore 파트너로서 기존의 플랫폼,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된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 집행 중
- VR, AR, Wearable 기기 등 다양한 기술과 기기의 성공적 개발 및 런칭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개발사, 삼성 등 제조사와의 협업 리드
- Google Play 사업을 총괄하면서 다양한 앱과 개발사의 파트너십을 통해 Google Play를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시킴

[향후 직무수행계획]

-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한 IT 전문성과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공할 것**
-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 예정

4-5. 사외이사 선임의 건_이승민 선임의 건

한국과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IP 분쟁 건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사업 확장 시 수반되는 리걸 이슈에 대응 가능한 역량 보유



이 승 민 이사/ 1978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법과대학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사
- (現) 법무법인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Oon & Bazul LLP 외국변호사

신규선임

[주요 활동]

- 한국과 영국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여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한 2007년 이후 각종 High Profile 국제 분쟁에서 핵심 역할 담당
- 법무법인 세종 근무 당시 LCIA 사무국에서 Counsel로, 2016년 싱가포르의 로펌에서 외국변호사로 파견 근무하였으며, 현재 국제중재 전문로펌인 피터앤김에서 싱가포르 법인장 역임
-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침해 및 라이선스 분쟁 관련 사건 수행 경험 다수

[향후 직무수행계획]

- 법무법인 피터앤김 싱가포르 법인장이자 한국 및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간 분쟁 사건 및 해외 IP 분쟁 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사업 확장 시 IP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
- 다수의 해외 관련 업무 및 현 싱가포르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
- 각종 분쟁에서 영어로 변론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외 문서, 협상 및 회의 등에서 원활하게 SM엔터테인먼트의 이익을 대변할 것

4-6. 사외이사 선임의 건_조성문 선임의 건

**글로벌 Top-tier 레이블 및 음원 유통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음악 데이터 분석 기업인 Charmetric의
現 대표로서 SM 3.0 핵심 전략인 멀티 레이블 체계 도입, 글로벌 사업 확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 가능**



조 성 문 이사/ 1977 年生

신규선임

[학력 / 주요 경력]

- M.B.A.,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컴퓨터공학 학사
- (現) Chartmetric 대표
- Scrum Ventures Venture Partner
- Oracle Corporation Principal Product Manager
- 게임빌(現 컴투스홀딩스) VP Engineering

[주요 활동]

- 게임빌(現 컴투스홀딩스) 창업 멤버로서 7년 간 근무하며, 5명의 회사가 100명의 회사로 성장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
- Noom, Ringle English, EO Studio 등 뉴욕, 샌프란시스코, 서울에 위치한 1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에 투자하였으며 투자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CEO와 커뮤니케이션하며 회사의 성장을 도움
- 2015년 Chartmetric을 창업해 음악 인더스트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 미국 3대 레이블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약 4,000개 고객 확보

[향후 직무수행계획]

- Chartmetric 창업 후 7년 간 미국의 음악 인더스트리에서 활동하며 대형 및 인디 레이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디스트리뷰터와 고객 및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며 **미국 음악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M 3.0의 핵심 전략인 멀티 레이블 체계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
- 글로벌 음악 산업의 다양한 전문가 및 젊은 인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SM이 미국 및 주요 국가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발굴하고 추천할 것

5-1.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_이창환 선임의 건

골드만삭스, KKR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다년간의 성공적인 M&A 및 피투자기업 경영 경험을 쌓았으며 SM 대상 주주행동 캠페인을 이끈 現 얼라인파트너스의 대표로서 주주가치 제고 관점의 전략 수립에 기여 가능



이 창 환 이사/ 1986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現) 얼라인파트너스 설립자/대표
-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한국 Private Equity 담당 상무
-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지점 IBD Analyst

신규선임

[주요 활동]

- SM엔터테인먼트 대상 주주 캠페인 진행 및 감사 선임 주주제안을 리드하였으며,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사측과의 합의안을 도출해 냄
- 우리금융지주 지분 1% 및 JB금융지주 지분 14% 인수를 총괄하였으며, 7대 금융지주 대상 주주 캠페인을 리드하여 다수 회사로부터 수용안을 도출해 냄
- '2022 年 제1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혁신가상 수상
- '2022 年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후보 10인 선정
- KKR 재직 중 오비맥주 및 KCFT 등의 성공적인 거래 주도/참여

[향후 직무수행계획]

-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이수만 및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내부거래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 실행
- 보상위원회에서 KKR에서의 경험을 활용해 임직원 보상방안 현실화, 성과연동보상비중 확대, 장기 주식연계보상비중 확대를 이끌 것
- SM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 것
- SM 3.0 계획에 따라 대규모 투자 시 골드만삭스, KKR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투자 및 M&A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5-2.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_장윤중 선임의 건

前 소니뮤직코리아 대표이사, 現 카카오엔터테인먼트 Global Strategy Officer이자 빌보드 선정 인터내셔널 파워플레이어에 선정된 국내 최고 엔터 전문가로서 SM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 가능



장 윤 중 이사/ 1981 年生

[학력 / 주요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중국어학 학사
- (現) 카카오엔터테인먼트 Global Strategy Officer
- (現)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법인 CEO
- (現) More Vision Inc. 사업총괄
- Sony Music Entertainment Korea/Asia 대표이사
- Frost & Sullivan ICT Division 컨설팅 애널리스트
- LG상사 IT 사업부

신규선임

[주요 활동]

- 글로벌 3대 메이저 레이블인 소니뮤직에서 음원/컨텐츠 디지털 라이선싱, 신사업, 파트너사 관리 및 대외협력 부장/팀장으로 시작해, 그 후 마케팅, A&R, 사업개발, 디지털 사업 부문 부사장직을 연임하였으며 소니뮤직코리아 대표이사/사장 및 아시아 허브 공동 총괄직까지 연임. 소니그룹사에서 한국인 최초로 **Global C-level/최고위 임원 후보로** 선정되어 이를 양성하는 **C-level** 코스 수료
- 2021년 미국 빌보드 본사가 선정한 인터내셔널 파워플레이어 선정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GSO로서 글로벌 진출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향후 직무수행계획]

- 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GSO 글로벌 전략 책임자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법인 대표이사로서 재임 중인 글로벌 음악 전문가로, **Sony Music Entertainment Korea**에서 대표이사/사장직까지 역임하면서 약 15여년 간 방대한 글로벌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노하우를 축적
- 글로벌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문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운영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포함해 **글로벌 확장 및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공할 것**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억원)

- 전년대비 이사회 인원 수 최대 14인 증가, 보수한도는 유지

(단위: 억원)	FY2021	FY2022	FY2023
이사 수	4인	4인	최대 18인
사내이사 수	3인	3인	최대 6인
보수한도	60	60	60
실 지급액	19.7	52.1	-
한도 소진율	33%	87%	-

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억원)

- 보수한도 유지

(단위: 억원)	FY2021	FY2022	FY2023
감사 수	1인	1인	최대 2인
보수한도	2	2	2
실지급액	1.6	1.6	-
한도 소진율	80%	80%	-

[APPENDIX]

1. 요약 연결재무제표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FY2020	FY2021	FY2022
매출액	5,799	7,016	8,484
매출원가	3,811	4,372	5,510
매출총이익	1,988	2,644	2,974
판관비	1,923	1,969	2,039
영업이익	65	675	935
기타수익	67	257	197
기타비용	313	176	101
금융수익	44	80	127
금융비용	138	68	6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	(130)	263	154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406)	1,731	1,253
법인세비용	398	399	362
당기순이익	(803)	1,332	89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FY2020	FY2021	FY2022
유동자산	6,465	7,695	8,365
비유동자산	4,224	5,455	6,287
자산총계	10,689	13,149	14,652
유동부채	4,338	4,007	4,597
비유동부채	189	1,258	1,125
부채총계	4,527	5,265	5,721
지배기업지분	4,318	6,162	7,025
자본금	117	119	119
비지배지분	1,843	1,722	1,906
자본총계	6,161	7,884	8,931
부채와자본총계	10,689	13,149	14,652

2. 요약 별도재무제표

[별도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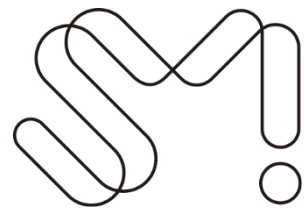
(단위: 억원)	FY2020	FY2021	FY2022
매출액	3,026	4,172	5,121
매출원가	1,861	2,455	3,035
매출총이익	1,165	1,717	2,087
판관비	803	976	1,086
영업이익	362	741	1,000
기타수익	54	249	104
기타비용	156	60	72
금융수익	45	84	91
금융비용	76	41	53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205)	(19)	-21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24	953	1,049
법인세비용	324	343	348
당기순이익	(300)	610	701

[별도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FY2020	FY2021	FY2022
유동자산	2,089	3,204	3,724
비유동자산	3,327	3,849	4,409
자산총계	5,416	7,053	8,133
유동부채	1,556	1,540	1,856
비유동부채	81	992	932
부채총계	1,636	2,533	2,789
자본금	117	119	119
자본잉여금	2,390	2,557	2,65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58)	16
기타자본항목	(48)	(94)	-44
이익잉여금	1,323	1,997	2,601
자본총계	3,780	4,520	5,344
부채와자본총계	5,416	7,053	8,13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억원)	FY2020	FY2021	FY2022
미처분이익잉여금	1,323	1,997	2,597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16	1,323	1,946
당기순이익	(300)	610	701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7	9	25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에 따른 자본내재분류(지분상품)	-	64	(75)
이익잉여금처분액	-	(51)	(312)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23	1,946	2,284



SM ENTERTAINMENT

SM Makes it